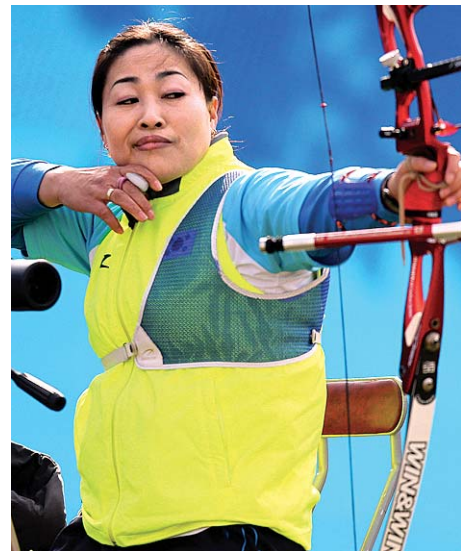




탁구 김영건 선수



양궁 김란숙 선수



볼링 송기수 선수



사격 이윤리 선수

한국, 장애인 아시안게임 3위 수성 광주·전남 선수들이 있었다

탁구·양궁·사격 등서 금메달 5개 획득

광주 출신의 김정길(25)이 탁구 단체전 금메달을 신고하며 한국의 2010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3위 수성의 주역이 됐다. 베테랑 정은창(41)과 한 조를 이룬 김정길은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 마지막날인 19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에서 열린 남자 TT4-5팀 결승전에서 난적 중국을 상대로 3-1 역전승을 거두며 정상에 올랐다. 김정길의 '금빛 스매싱'으로 이번 대회 27

번째 금메달을 수확한 한국은 이란에 은·동메달 수에서 앞서며 극적으로 종합 순위 3위를 지켜냈다. 김정길과 정은창이 합작한 금메달은 중국의 전 종목 석권을 저지하는 값진 금메달이기도 하다. 중국은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에 앞서 중국에 유리한 쪽으로 장애인 등급을 통합하면서 20개의 금메달이 걸린 탁구에서 19개의 우승을 싹쓸이 했다.

이번 대회 TT4 개인전에서 은메달을 따냈던 김정길은 결국 단체전에서 만리장성을 뛰어 넘어 장애인아시안게임의 대미를 장식했다. 지난 10월 광주에서 열린 세계장애인탁구 선수권 오픈전에서 '깜짝우승'을 차지했던 광주 출신의 김영건(26)도 TT3 개인전과 단체전 결승에서 은메달 두 개를 더하며 광주 탁구의 힘을 과시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서 광주소속의 선수들은 한국에 4개의 금메달을 선땀했다.

볼링의 송기수(39)는 TPB10체급 개인전 금메달에 이어 2인조 경기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 2관왕에 올랐다. 여자 양궁 리커브 오픈 단체전 랭킹 라운드에서 고희숙(43)·이화숙(44)과 함께 세계 신기록을 작성했던 김란숙(43)은 단체전 결승에서 195-190으로 중국을 제압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김란숙은 개인전 은메달도 기록했다. 권상의 박인수(A체급)도 플뢰레 단체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하며 광주 선수단에 힘을 보탤다. 전남을 대표한 사격 이윤리(36)도 금메달을 명중시키며 베이징 장애인올림픽에 이어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까지 석권했다. 이윤리는 대회 첫날 여자 10m 공기소총 입사 예선에서 탈락하며 아쉬움을 삼켰지만, 베이징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한국에 첫 금을 안겨줬던 50m 3자세에서 다시 한번 금을 명중시켰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호랑이들의 사랑 나누기

KIA 타이거즈, 월간 MVP 적립금 등 모아
 1280만원 상당 기금·물품 복지시설에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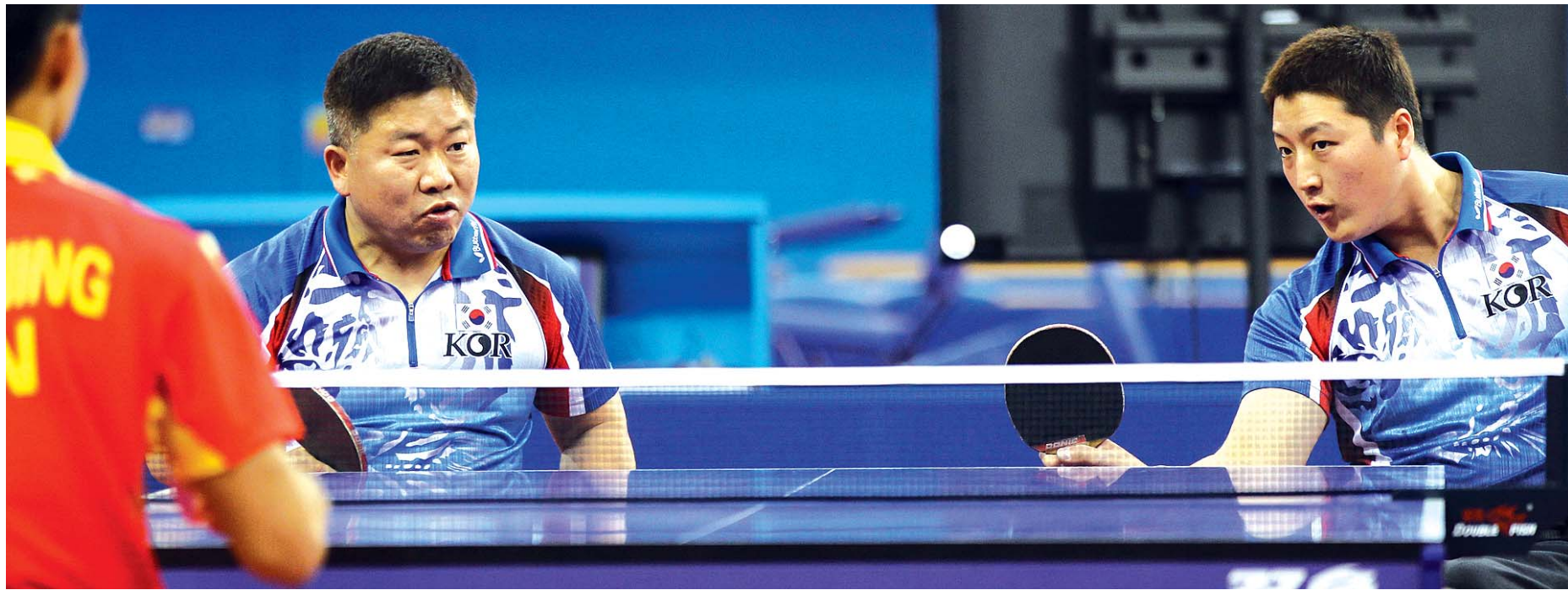
KIA 타이거즈가 연말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해 훈훈한 온정을 나누었다. KIA는 17일과 18일 백선바오로집과 영아일시보호소 등을 찾아 왕뚜경 홈런 존, 밝은 안과 21 월간 MVP 적립금 등을 통해 모은 1280만원 상당의 기금과 물품을 전달했다. 왕뚜경 홈런존은 KIA 타자들이 무등경기장 야구장 왕뚜경 홈런존을 넘기는 경우 한국야구트러스트에서 100만원의 상당의 물품을 적립해주는 것으로 올 시즌 KIA는 9개의 왕뚜경 홈런을 기록, 9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받았다. 또 2010시즌 지역 기자단이 선정하는 월간 MVP에 이름을 올린 서재용, 김상훈, 최희섭, 양현중, 이용규, 김선빈 등 6

명의 선수는 밝은 안과 21로부터 받은 시상금 100만원 중 50만원을 이웃돕기 성금으로 내놓았다. 이외에 선수들의 애장품을 경매해 적립한 홈페이지 경매 수익금 등 KIA는 올 시즌 총 1280만원 상당의 기금과 물품을 적립했다. 17일에는 내아수 안치홍과 신종길이 광주시 광산구 삼가동에 있는 백선바오로의 집을 찾아 왕뚜경 홈런존 후원 물품 전달식을 가졌다. 18일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의 주역 윤석민과 양현중이 광주시 동구 소재동에 위치한 대한사회복지회 영아 일시보호소를 찾아 왕뚜경 홈런존 월간 MVP 적립금을 전달하고 사랑나눔 활동을 펼쳤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의 투수 윤석민과 양현중이 18일 광주시 동구 소재동 영아일시보호소를 찾아 월간 MVP 상금으로 적립한 이웃돕기 성금을 전달했다. <KIA 제공>



19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남자탁구 TT4-5 단체전 결승에서 김정길(오른쪽)이 공격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탁구 金 추가... 힘겹게 종합 3위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금 27·은 43·동 33개... 중국 1위·일본 2위

한국이 2010 광저우장애인아시안게임 마지막날 금메달 1개를 추가하며 극적으로 종합 3위를 지켜냈다. 한국은 19일 중국 광저우 아시안게임타운 체육관에서 열린 탁구에서 금메달 1개와 은메달 3개를 획득해 총 금메달 27개와 은메달

43개, 동메달 33개를 땀다. 이로써 한국은 2006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아시아-태평양 장애인경기대회에 이어 종합 3위에 올랐다. 1위는 개최국 중국, 2위는 일본이 차지했다. 전날 이란에 금메달 1개 차로 뒤졌던 한국

은 남자 탁구 TT4-5 단체전 결승에서 금메달을 따 27개로 균형을 맞췄고, 은메달과 동메달 개수에서 앞서 이란(금메달 27개, 은메달 24개, 동메달 29개)을 제쳤다. 개최국 중국은 금메달 185개와 은메달 118개, 동메달 88개를 따 쿠알라룸푸르 대회

와 광저우 일반 아시안게임에 이어 압도적인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중국은 육상 종목에 걸린 금메달 120개 중 69개를 휩쓸고 수영에서도 81개 중 48개의 금메달을 가져갔다. 한편 '아시안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열린 광저우 장애인아시안게임은 지난 12일 개막해 8일간의 열전을 벌여왔다. 이번 대회에는 총 18개 종목(19개 세부종목)에 40여 개국 55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432개의 메달을 놓고 경쟁을 벌였다. 3위 수성을 목표로 내건 한국은 전 종목에 선수 198명을 포함해 총 300명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다. /연합뉴스

김혜윤 개막전 역전우승

KLPGA 차이나여자오픈

김혜윤(21·비씨카드)이 짜릿한 역전 우승으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2011 시즌을 힘차게 열어젖혔다. 김혜윤은 19일 중국 사면의 오리엔트 사면 골프장(파72·6503야드)에서 열린 KLPGA 2011 시즌 개막전 현대 차이나 레이다스오픈 마지막날 4언더파 68타를 몰아치며 3라운드 합계 4언더파 212타를 적어내 우승컵을 차지했다. 지난 5월 러시엔개시 채리티 클래식 이후 7개월여만에 다시 우승한 김혜윤은 정규투어 통산 우승 횟수를 3승으로 늘리며 희망찬 새해를 맞게 됐다. 1.2라운드에서 선두를 달렸던 신에 이정민(18·삼화저축은행)은 4타를 잃고 공동 12위(1오버파 217타)로 떨어졌다. 김혜윤은 10여명이 2~3타차를 유지하며 치열한 접전을 펼친 마지막 라운드에서 차분한 경기 운영으로 리드를 잡은 뒤 연장전에서 끌려들어 갈 뻔 했던 18번홀(파4)에서 천

금같은 파퍼트를 성공시켜 우승을 지켜냈다. 선두 이정민에 3타 뒤진 채 3라운드를 시작한 김혜윤은 전반에 2타를 줄인 뒤 10번홀(파4)에서 두번째 샷을 1.5m에 붙여 버디를 잡아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하지만 동반 플레이를 펼친 김하늘(22·비씨카드)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김하늘은 12번홀(파5)에서 3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집어넣어 공동 선두로 올라섰고 15번홀(파3)까지 접전을 이어갔다. 팽팽한 균형을 깨긴 것은 16번홀(파4)였다. 김혜윤은 이 홀에서 2.5m짜리 버디 퍼트를 홀에 떨어뜨려 다시 단독 선두로 나섰고 김하늘은 17번홀(파4)에서 2.5m 거리에서 버디 퍼트를 넣지 못해 1타차로 끌려갔다. 지난해 우승자 유소연(20·하이마트)이 3라운드에서 6언더파 66타를 몰아치며 합계 3언더파 213타로 먼저 경기를 끝냈지만 김혜윤의 파퍼트가 들어가면서 연장전의 기회는 돌아오지 않았다. 유소연은 김하늘과 함께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